

제주시 노형동에 일반고교 신설 추진

총 30학급 870명 규모... 오는 2025년 개교 계획 이석문 교육감 "교육과정 안정적 시행위해 필요"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 개교 일정 최대 변수로

제주시 노형동 지역에 2025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1개교 신설이 추진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는 감소 추세지만 향후 10년간 늘어나는 도내 고등학생 수를 고려, 학급당 학생수의 안정화를 위해 제주교육당국이 내린 특단의 대책이다.

▶35년만의 일반고 신설 추진=제주지역에서 일반고 신설 추진은 1986년 남녕고등학교 개교 이후 35년만의 일이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7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교 신설 계획이 담긴 '2021~2026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중기

학생 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 유지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고교는 밀집도 완화와 더불어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하 유지가 필요함을 피력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 8개 평준화고 288학급 중 272학급(94%)이 28명 이상 과밀학급이며, 30명이 넘는 학급도 147학급(51%)이다.

향후 5년간 학생 수 등을 예측한 중기학생 배치계획을 보면 내년

2022학년도에는 고교 학생수가 1만 8373명인데, 2025학년도에는 1393명이 늘어난 1만9766명으로 증가한다. 이후 2028학년도에 내년 대비 2884명 늘어난 2만125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줄어들어 2032학년도까지 현재 수준의 학생 수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일각에선 2025년 고교 1개교가 신설되도 과밀학급 해소에는 역부족이며, 당장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평가도 나온다.

▶설립 일정 빠듯=현재 도교육청은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등학교 부지 내 미활용 용지(5만6300㎡)에 학년당 10학급 학생수 290명 등 총 30학급 870명 규모의 공립 남녀공학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교육청의 학교 용지가 예정 지인만큼 토지매입에 대한 비용부담

이 없으며, 시설비는 최소 3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향후 설립 일정은 다소 빠듯하지만 도교육청은 2025년 개교를 목표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설계용역 1년, 시설공사 약 2년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7월까지 교육부의 재정투자심의 통과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계획된 절차가 지연될 경우 자칫 2025년 개교 목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축·재정지원 확대와 투자심사 등의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고교 신설과 관련해 정부와 협의는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도민과 의회, 도청에서도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8일 금요일 음 9월 3일 (10월)

기상정보

구름 많음

제주는 대체로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 내외, 낮 최고기온은 27~28℃로 전망된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 시 침수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20%
20%	성 산	20%
20%	고 산	2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구름 많음 21/27℃
모레 ☀ 구름 많음 22/28℃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한림민속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세화민속오일장	5. 10	중문향토오일장	3. 8
함덕오일장	1. 6	표선오일장	2. 7
고성오일장	4. 9	대정오일장	1. 6

이륜차 신호위반 예사 안전모 미착용 수두룩 경찰 2시간 단속 21건 적발

이륜차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7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제주시 일도2동 수협사거리 인근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및 불법 개조 등 단속에 나서 21건을 적발했다.

이 중 형사입건은 3건으로, 무면허 1건, 번호판 가림 1건, 번호판 훼손 1건이다.

이와 함께 범칙금을 물리는 통고 처분은 18건으로, 안전모 미착용이 13건, 신호 위반이 4건, 보도 통행 1건이다. 이들에게는 지자체를 통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날 단속에는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위반 행위는 없었다.

또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보도로 통행한 2명의 운전자가 적발돼 범칙금이 물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1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는 총 388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13건과 비교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성기자 kms6510@ihalla.com



가을꽃이 반기는 오일시장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화사한 가을꽃을 바라보고 있다. 이상국기자

올 9월 제주하늘 티없이 맑았다

초미세먼지 2015년 첫 관측 이래 최저치 기록

올해 9월 제주하늘이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9월 제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는 8μg/㎥를 기록,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적었던 해는 2017년 9월이었다.

환경부는 올해 9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이유는 국내 배출량 감소와 양호한 기상조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5등급 차량 감소 등 미세먼지 대책과 9월 오후초크해 부근 고기압 발달로 동풍이 증가하면서 농도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켰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등산의 계절 가을, 산악사고 '위험'

최근 3년 제주서 총 430건 발생... 10~11월 20%

제주소방본부가 등산객이 늘어나는 가을철을 맞아 '산악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는 총 43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274명이 구조됐다. 발생 원인은 일반조난이 155건(36%)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질환 42건(9%), 낙석추락 34건(8%) 등의 순이었다. 430건의 산악사고 가운데 가을철인 10~11월에 발생한 경우는 86건(20%)에 달했다.

실제 지난 6일 오전 9시46분쯤 한라산을 등반하던 등산객이 사라로름 인근에서 호흡곤란을 호소해 소방헬기로 제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악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주소방은 7일 '산악사고 예방수칙'을 발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기상 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며,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 운동화보다는 바닥 마찰력이 높은 등산화 신어야 한다. 또 등산스틱을 이용하면 체력을 아끼면서 산을 오를 수 있고 하산 시에도 낙상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가을산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급격히 변하므로 기온하강을 대비해 여벌의 옷을 반드시 준비하고, 산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음료·간식 등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해 119 신고 시에는 등산로에 배치된 산악위치표지판이나 국가지점번호를 확인해 알려주면 구조대가 더 신속하게 신고 장소로 출동할 수 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이룸갤러리

백광익 화백 초대전

오름 위에 부는 바람

기간. 2021. 10. 2(토) ~ 10. 20(수) 장소. 이룸갤러리 전시실A

운영시간. 매일 10:00 ~ 22:00 (일요일 14:00 ~ 22:00) 홈페이지. www.irimgallery.com 문의. 070-7795-5000

백 광 익 (白光益)

주요 경력

- 개인전 40회 (한국(서울, 부산, 광주, 제주), 미국(뉴욕), 중국(북경, 천진))
- 단체전 및 초대전 (360여 회)
- 심사,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 부산, 경기, 제주도, 대구삼성, 행주, 한밭, 단원 미술대전 심사위원

현재

사) 한국미술협회, 부산 혁 동인, 제주 전업작가회
사) 제주국제예술센터 이사장, 동아육선 전속작가

인사말 | 이룸갤러리에서 백광익 화백을 모시고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전시를 개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초대한 백광익 선생님은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 특유의 문화와 자연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다양하고 일관된 작품으로 승화시켜 왔습니다. 선생님의 작품 안에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 제주의 특별한 자연 유산 '오름'과 '바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광익 선생님의 많은 수상 이력에서도 알 수 있는 우수한 실력과, 최근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현시대보다 딱 반걸음 정도 앞서가는 현대적 감각은 글로벌 시대 속의 제주의 위상을 높이고 앞장서 나갈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흔의 나이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제주의 특별함을 화폭에 담아내며 제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계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시는 백광익 선생님을 초대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밤하늘 아래 쏟아지는 유성 같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전야같은 태풍의 눈으로 다가오기도 하며, 쓰러지지 않는 고목나무같은 제주인의 강인한 정신이 돋보이기도 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오름 위에 부는 바람> 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귀한 걸음 하셔서 백광익 선생님의 제주 사랑을 가슴으로 느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룸갤러리 관장 이 회 속

찾아오시는 길 |

오일장 교차로 제주서중 이룸갤러리 신광사거리
• 마트로마트 • 순복음교회

이룸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